

“근현대 불교기록을 찾습니다”

불교신문·중앙기록관 공동캠페인…수집품 영구보존

불교신문(사장 선목스님)과 중앙기록관(관장 영담스님, 총무원 총무부장)이 근현대불교 자료 찾기에 나섰다.

불교신문과 중앙기록관은 각종 문서·사진·영상·계첩 등 근현대불교 자료를 수집하는 공동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근현대 불교기록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연중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홍보와 자료수집에 들어갔다.

이번 캠페인은 “사라져가는 불교 기록물을 수집, 보존함으로써 소중한 기록문화유산을 지켜 불교와 종단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수집 물품은 대한제국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나온 불교와 종단 관련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수집품은 근현대불교를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문서, 도록, 유품, 계첩, 일기, 메모, 사진, 편지, 안거증, 전법계 등이다. 자료 수집은 △현장수집 △기록관 기증 △우편수집 △구술기록

중앙기록관과 불교신문은 발굴 및 수집한 기록물을 선별한 후 종단에서 발행하는 불교신문을 통해 보도할 예정이다. 지난 2008년부터 불교신문이 지속적인 보도하고 있는 ‘근세불교

통해 자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스님과 불자들이 불교자료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기록관장 영담스님과 불교신문 사장 선목스님은 “그동안 불교계가 자료의 중요성을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불교와 종단, 그리고 역대 스님들이 남긴 자료가 많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목스님과 영담스님은 “전국에 있는 스님과 불자들이 캠페인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길 부탁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근현대 불교자료 찾기 캠페인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중앙기록관은 지난해 중앙종회에서 관련예산을 배정받았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본지 ‘근현세 미공개 자료를 찾아’

기획연재 등 통해 심층보도 계획

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수집품들은 종단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중앙기록관에 영구보존할 계획이며, 기증자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기록관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 위치하고 있다.

미공개 자료를 찾아’의 연재물을 더욱 다양하고 심층적인 내용으로 소개할 방침이다.

또한 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자료찾기 공고와 광고를 게재해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양 기관은 캠페인과 보도를

제25회 불교미술대전 공모

조계종 총무원, 8월 3일~5일 접수

9월 1일~17일 수상작품 전시 예정

민족문화유산인 한국불교미술을 계승할 역량 있는 인재들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이 개최된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스님)는 제25회 불교미술대전의 공모와 시상식, 작품전시 등 시행일정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불미전은 오는 8월3일부터 5일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8월 17일 조계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상자를 발표한다. 또 9월1일 시상식을 하며 같은 날부터 17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수상작품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불교미술대전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회화와 조각, 공예부문으로 구분되며, 회화는 150호(227cm×

181cm) 이내로 변상도가 있는 사경, 판화, 불교소재 민화 등을 소재로 하면 된다. 조각은 높이 180cm, 폭 180cm, 두께 120cm 이내로, 가급적 실내전시 가능한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공예는 높이 180cm, 폭 120cm, 두께 120cm 이내 작품으로, 서각도 대상에 포함된다.

응모희망자는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품사진과 제작의도가 담긴 작품설명서(포트폴리오)와 함께 응모기간 내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 제출하면 된다.

불교미술관련 대회로는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불교미술대전의 대상 수상자에게는 조계종 총무원장 상

“스님이 발원한 ‘정토세계’ 함께 이뤄가길 간절히 기원”

조계종, ‘4대강 공사 반대 소신공양’ 문수스님 애도논평

4대강 반대 등의 유서를 남기고 소신공양한 문수스님의 입적을 애도하는 종단 논평이 나왔다. 조계종 대변인 원담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지난 1일 ‘문수스님 입적에 대한 애도 논평’을 발표하고 스님의 입적을 추모했다. ▶관련기사 5면

은 생명평화를 염원하며 5월31일 소신(燒身)한 문수스님의 입적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스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면서 “이번 생애에서의 정진은 비록 다하였으나, 스님이 발원한 정토세계를 모든 중생들이 함께 이뤄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성수 기자

장과 상금 1500만원이 수여된다. 최우수상을 수상하면 상금 500만원이, 우수상에게는 상금 100만원, 장려상은 50만원이 각각 주어진다.

총무원 관계자는 “1970년 1회를 시작으로 40년 역사를 가진 대회로,

인재 발굴 육성과 함께 불교미술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라며 “전통불교미술 전승에 관심 있는 미술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02)2011-1770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韓日공동 초조대장경 복원한다

7일 고려대장경硯·동화사·대구시 ‘복원간행위’ 발족

2011년 고려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 천년의 해를 앞두고 한일 불교학계가 초조대장경의 공동 복원을 추진한다. 사단법인 장경도량 고려대장경연구소(이사장 종림스님)는 “제9교구본사 동화사, 대구시와 공동으로 오는 7일 오전11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일 공동 초조대장경 복원간행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지난 5월29일 밝혔다. 복원간행위원회 발족은 지난 2월17일 고려대장경연구소와 동화사, 대구시가 체결한 상호협력 협약(MOU)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2014년까지 초조대장경

2000여 권을 원본형태로 복원에 나선다.

특히 동화사 주지 성문스님,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스님, 고토 노리오 교토 남산사 주무총장,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 이견무 문화재청장, 루이스 랭카스터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대 명예교수 등 한일 불교계 주요 인사와 국내외 석학 50여 명이 고문과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대구광역시 주요 문화관광사업의 하나로도 추진되는 이 사업은 초조대장경 1000년이라는 역사적인 의미와 더불어 대장경 천년

축전의 핵심 콘텐츠로 활용된다. 대구시는 몽골과의 전란 이전까지 초조대장경을 보관했던 팔공산 부인사의 문화사적 가치와 더불어 대구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키울 방침이다. 초조대장경은 고려 현종 2년인 1011년 관각된 대장경이다. 거란의 침입을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물리치기 위해 제작됐으며, 목판인쇄술의 발전에 기여했다.

한편 이날 2시에는 ‘고려 초조대장경 조사완료 국내보고회’도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다.

장영섭 기자 fusi@ibulgyo.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1일 ‘소신공양’한 문수스님 분향소가 마련된 조계사를 찾아 애도의 뜻을 표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어 여강선원장 수경스님에게 “문수스님의 장례를 잘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동국대, 몽골사막에 ‘자비의 숲’ 조성

비타민나무 심어 사막화 방지 협력키로

동국대학교가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한 숲 조성에 나섰다. 동국대는 이 사업을 ‘자비의 숲’이라고 부른다.

동국대 바이오시스템대학과 생명과학연구원 연구원이 구성된 ‘몽골방문대표단’(단장 박정국·바이오시스템대학장)은 지난 5월13일 몽골 바츨버(Batsumber)에 위치한 몽골 국립대학 연습원에서 ‘동국·몽골 대 자비의 숲 조성 기념식’을 열고

비타민나무(일명 사막보리수나무) 1000여 그루를 심었다.

숲 조성 기념식에는 박정국 단장과 몽골국립대학 조그바드락 대학 원장을 비롯한 동국대·몽골국립대학 관계자와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자비의 숲이 조성되는 바츨버는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한 전진기지로, 동국대와 몽골대는 총 10ha(9만9000㎡) 규모의 숲 조성을 목표로 매년 2ha씩 개간하고, 이 숲

에 2015년까지 총 1만여 그루의 비타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몽골은 최근 들어 국토의 90%가 사막으로 변해 6만9000㎢의 목초지가 사라지고 식물종 75%가 멸종해 봄철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황사의 양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박정국 단장은 “이번 자비의 숲 조성이 몽골지역 사막화 방지는 물론, 인구의 95%가 불교신자이고 우리와 문화적으로 유사한 배경을 지닌 몽골에서의 포교와 주민 수익사업 창출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부영 기자 chisan@ibulgyo.com



봉

조계종조 도의국사(道義國師) 다례

행

모시는 글

이땅에 조계선법을 주창하여 조계종을 개당하신
종조 도의국사의 다례를 봉행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2554(‘10)년 6월 13일(음 5.2) 일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조계사 대웅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